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브로델

고 원

- | | |
|--------------|-----------|
| I. 머리말 | III. 장기지속 |
| II. 브로델의 전체사 | IV. 맺음말 |

I. 머리말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의 저작들이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들어서이다.¹⁾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우리나라에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이 유행하기 시작한 때인데, 이런 상황에서 브로델의 역사학은 진지하게 연구되기도 전에 포스트모던 역사학자들에 의해 극복해야 할 ‘낡은’ 역사학으로 낙인 찍혀 버렸다. ‘결정론에 가까운 구조주의’, ‘움직이지 않는 역사’, ‘사회과학적 분석과 계량을 중시하는 방법’ 그리고 ‘거대한 이론이나 설명의 틀에 맞추어 역사현상을 보려고 하는 거대담론’ 등이 브로델을 바라보는 주된 시각이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포스트모던 역사학이 브로델을 비판하면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축하고 있을 때, 포스트모더니즘이 스스로의 지적 출발점이라 여기고 있는 프랑스 철학계에서는 아이러니 하게도 오히려 브로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그의 역사사상을 다양하게 재해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모습은 역사에 배타적이었던 구조주의의 몰락 이후 근대철학을 반성하고 새로운 철

1) 이전까지 몇몇 논문을 통해서만 소개되었던 브로델의 저서가 우리나라에 처음 번역된 것은 1990년이다. 이정옥이 *Ecrits sur l'histoire*(Flammarion, 1969)를 『역사학 논고』(민음사)라는 제목으로 번역했다. 1991년 김응중이 아날의 역사가들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서인 『아날학파』(민음사)를 출간했고, 1995~1997년 주경철이 브로델의大作 *Civilisation matérielle, économie et capitalisme, XV^e-XVIII^e siècle*, 3vol. (Armand Colin, 1986)을 『물질문명과 자본주의』(까치글방)라는 제목으로 번역했다.

학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났다. 폴 리쾨르(Paul Ricoeur)나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 그리고 질 들뢰즈(Gilles Deleuze)와 펠릭스 가타리(Félix Guattari) 등 다양한 입장을 가진 철학자들이 서로 다른 방향에서 브로텔에 접근했지만, 그들은 모두 브로텔의 역사학을 단순하게 근대 사회과학적 역사학과 동일시 할 수는 없다는 시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철학자들은 브로텔을 역사학이 근대 사회과학적 전통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으로 바라보고 있다.²⁾

철학의 영역에서 전개된 다양하고 방대한 논의들을 여기서 다 살펴볼 수는 없겠지만, 이 새로운 흐름이 역사학자들에게 가지는 의미는 브로텔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에도 브로텔은 여전히 유용한가? 우리는 바로 이 문제를 살펴보려 한다.

II. 브로텔의 전체사

1. 아날의 역사

논의의 출발점은 브로텔과 근대 사회과학적 전통 간의 관계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브로텔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브로텔과 근대 사회과학적 전통 간의 비판적인 관계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었다. 그보다는 브로텔을 근대 사회과학적 전통의 적극적인 수용자로 간주하는 시각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시각은 브로텔의 작업을 지나치게 단순화시키고 있다. 이것은 브로텔을 엠마누엘 르 르와 라뒤리(Emmanuel Le Roy Ladurie)나 피에르 쇼뇌(Pierre Chaunu) 같은 제3세대 아날 역사가들과 뭉뚱그려 바라보는 모습에게 잘 드러난다. 브로텔이 제3세대 아날의 작업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사실, 그리고 이들 또한 브로텔을 자신의 이론적 스승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들은 종종 무시되고 있다.

브로텔 이후 아날의 편집권을 물려받은 제3세대 아날 역사가들의 특징은 현실의 전체성을 포기하고 각각의 개별적인 연구대상에만 몰두한다는 점이다.

2) Jacques Rancière, *Les noms de l'histoire, Essai de poétique du savoir*(Seuil, 1992); "Histoire et récit", *L'histoire entre épistmologie et demande sociale* (IUFM de Créteil, 1994); 폴 리쾨르, 『시간과 이야기』, 김한식·이경래 옮김(문학과 지성사, 1999) 참조.

다. 전체사의 시대가 끝나고 ‘조각난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전체를 거부하는 조각난 역사에는 합치될 수 없는 서로 다른 다양한 시간들이 존재할 뿐이다. 가격의 역사, 소득의 역사, 유통의 역사, 신앙의 역사 등과 같은 부분의 역사만이 있을 뿐이며, 역사가는 자신이 연구하는 계열에 대한 서술만으로 한계로 지켜야 한다. 총체적 시간이 거부된 자리에 역사성은 사라져버렸고, 모든 단절과 변환을 부정하고 불변요소들의 힘을 보증하는 ‘움직이지 않는 역사’³⁾가 그 자리를 메운다. 이른바 ‘새로운 역사학(la nouvelle histoire)’⁴⁾이 등장한 것이다. ‘새로운 역사가들’은 수치를 통해 역사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거라 믿었고, 그때부터 가능한 모든 대상들의 계량화가 시도된다. 출생률, 사망률, 유언장의 서명, 제한된 장소에서의 범죄율 등… 역사가는 더 이상 역사를 서술하는 사람이 아니라 통계를 뽑고, 곡선을 그리고, 한계들, 변곡점들을 표시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일 뿐이다.

제3세대 아날의 작업을 브로델은 그다지 호의적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나는 르 르와 라뒤리가 ‘통계의 역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래의 역사학자는 “프로그래머가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이면에 어떤 환상이나 위안이 있지는 않은지 우려하는 바이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프로그래머의 프로그램이다.⁵⁾

역사학을 근대 사회과학의 실증주의적 전통 속으로 적극적으로 편입시키려 했던 제3세대 아날 역사가들은 본인들 스스로가 주장하듯이 브로델의 후계자가 아니라 에르네스트 라브루스(Ernest Labrousse)의 후계자들이었다.⁶⁾ 이

3) <움직이지 않는 역사>는 르 르와 라뒤리의 1974년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 취임 강연의 제목이었다.

4) ‘새로운 역사학’은 제3세대 아날이 스스로의 역사학을 지칭한 이름이었다. 이들은 *La nouvelle histoire*라는 제목으로 자신들의 역사학을 소개하는 책을 펴내기도 했다. Jacques Le Goff, Roger Chartier et Jacques Revel(dir.), *La nouvelle histoire, Les encyclopédies du Savoir moderne*(Retz CEPL, 1978) 참조.

5) 페르낭 브로델, 『서문』, 이정옥 옮김, 『역사학 논고』(민음사, 1990), p. 13.

6) 쇼뇌는 “오늘날 프랑스의 모든 역사학파는 라브루스 계열이다”라고 주장하며, 자크 르 벨(Jacques Revel)은 “브로델은 거의 후계자가 없다”고 단언한다. 프랑수아 푸레(François Furet)는 “브로델과 제3세대 아날역사가들은 철학적이거나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단지 제도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을 뿐”이라고 이야기한다. 미셸 보벨(Michel Vovelle) 역시 자신을 “브로델의 계승자가 아닌 라브루스의 계승자”라고 밝힌다. Pierre Chaunu, “Conjonctures, structures, systèmes de civili-

들이 라브루스의 작업에 매력을 느끼고 그의 주변에 몰려든 것은 라브루스의 사회경제사가 근대역사학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⁷⁾ 그렇지만, 바로 동일한 이유에서 브로텔은 라브루스와 그 제자들의 작업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즉, 라브루스 계열의 사회경제사는 근대역사학의 경계 안에 안주하고 있으며, 때로는 19세기의 전통적인 역사학으로 회귀하는 모습까지도 보여준다고 지적한다.⁸⁾ 브로텔에게 있어 중심적인 문제는 정치사 중심의 ‘낡은’ 역사서술을 사회과학적 방법론으로 무장한 ‘새로운’ 역사학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근대의 시간이 설정해 놓은 역사학의 전통적인 경계, 그 자체를 넘어서는 것이다. 브로텔과 제3세대 아날 사이의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당시 프랑스 학계의 지배적인 조류였던 구조주의에 대한 태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라브루스 계열의 역사가들이 클로드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의 구조주의 인류학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역사인류학으로 나아간 반면, 브로텔은 처음부터 끝까지 레비-스트로스의 실증주의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브로텔이 호감을 표시했던 인물은 오늘날 포스트모던 역사학이 자신들의 이론적 토대로 간주하고 있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였다. 브로텔은 푸코의 열렬한 후원자였으며, 그가 아날의 창시자이자 자신의 지적 스승인 “루시앙 페브르(Lucien Febvre)의 유일한 계승자”라고 이야기한다.⁹⁾

sations”, *Conjoncture économique, structures sociales-Hommage Ernest Labrousse*(Ecole pratique des hautes études, 1974), p. 21 ; Entretien avec François Furet, *Magazine littéraire*(Mars, 1986), pp. 92-93 ; Jacques Revel, “Une œuvre inimitable”, *Espace Temps*, 34/35(1986), p. 13 ; Michel Vovelle, “Plutôt labrous-sien que braudélien”, *ibid.*, p. 16.

7) 프랑수아 도스, 『구조주의의 역사 I』, 이봉지·송기정 옮김(동문선, 1991), pp. 281-282.

8) 페르낭 브로텔, 『장기지속: 역사학과 사회과학들』, 『역사학 논고』, pp. 54-55.

9) 푸코가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직에 지원할 때 브로텔은 푸코의 후원자였다. Didier Eribon, *Michel Foucault*(Flammarion, 1989), p. 144와 pp. 209-210. 푸코에 대한 브로텔의 언급은 Fernand Braudel, “Foreword”, Traian Stoianovich, *French Historical Method, The Annales Paradigm*(Cornell University Press, 1976), pp. 16-17 ; “Discussion”, *Review I*, 3/4(Winter/Spring, 1978), p. 256.

2. 패러다임의 거부

근대 사회과학적 전통의 가장 큰 특징은 경계를 설정하고 자기 완결적인 고정된 이론 체계로 자신의 정체성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포스트모더니즘 이론가들조차도 이러한 모더니즘의 전통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점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론적 원천이라 내세우고 있는 푸코나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등의 프랑스 철학자들과 차이를 보인다. 이 철학자들은 항상 자신들의 철학을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묶는 것을 거부했다.¹⁰⁾ 그렇지만, 포스트모더니즘은 스스로 부여한 이름에서 보여지듯이 모더니즘을 대체하는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제시된다. 포스트모더니즘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포스트모던 역사학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는 신문화사나 미시사나 하는 끝없는 경계 짓기로 나타난다.

근대과학의 전통에서 차용한 자신만의 고유한 대상과 방법 찾기는 근대 역사학의 역사를 구성하는데, 정치사, 경제사, 문화사 혹은 사건사, 구조사, 계열사 등이 차례로 등장한다.¹¹⁾ 이처럼 근대의 역사학들은 끊임없이 경계를 설정하고 닫힌 체계 안에 자신을 가둬 버렸다. 그 결과 역사학은 자신의 가능성을 스스로 한계 지어 버린다. 브로텔은 근대 역사학의 이러한 행태를 비판한다.

무엇보다 역사학자는 그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으로서의 과거를 향해 문을 연다. 그렇지만, 만일 그가 가능한 한 멀리 보고자 한다면 그는 반드시 다른 문을, 또 그러고 나서 다른 문을 두드려야 할 것이다. 매번 새로운 또는 약간 다른 경관을 다루게 될 것이며 그 경관들 중의 몇 가지 즉 문화적-사회적 경관, 문화

10) 예컨대, 이들은 자신들의 철학을 구조주의 혹은 포스트 구조주의로 분류하는 것을 거부한다. 우리가 이른바 구조주의자라고 부르는 이들 가운데 스스로 구조주의를 자처한 인물은 레비-스트로스가 유일하다.

11) 사실 포스트모던 역사학에서 제기하는 거시사와 미시사의 대립은 근대 학문체계 내에서 전개되어온 전통적인 논쟁의 한 형태일 뿐이다. 이 대립을 방법론의 차원으로 본다면 근대 과학에서 도입된 사회과학적 방법론 논쟁(예컨대, 거시 경제학 대 미시 경제학과 같은 사회과학 내의 논쟁들)의 연장선에 있으며, 인식론의 차원으로 본다면 근대 역사학의 성립 가능성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헤겔학과와 랑케학과 사이의 보편/특수 논쟁의 재판이다.

적-정치적 경관, 사회적-경제적 경관, 경제적-정치적 경관 등을 배치할 줄 모른다면 그는 명칭을 받을 만한 역사가자가 못될 것이다. 역사는 그 모든 것을 한데 결집하며 역사는 그 인접영역들, 그 공유부분들, 그 무한한 상호작용들의 총합이다.¹²⁾

내게 있어서 역사란, 있을 수 있는 모든 역사의 총체,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모든 과정, 모든 작업들의 총체이다. 내 생각에, 유일한 오류는 이러한 여러 역사학들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제하는 일이라. 그것은 바로 역사주의적 오류이며 앞으로도 그러한 오류가 계속될 것이다.¹³⁾

역사란 하나의 차원, 하나의 도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복잡하고 다면적이며 때로는 상충적인 면모들을 보여주고 있는 역사는 “n차원에 의해서만 인식될 수 있을 뿐이다.”¹⁴⁾ 따라서 중요한 것은 상이한 노선과 관점들 사이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이제까지 역사학들이 그 안에서 헛되이 칩거하려 했던 잇따른 정의들을 수용하고 흡수하는 것이다. 바로 이점에서 아날의 탄생은 근대 역사학의 역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아날의 역사학을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규정한 트라이안 스토이아노비치(Traian Stoianovich)의 책, 『프랑스의 역사학 방법, 아날 패러다임』 서문에서 브로델은 아날이 폐쇄적이고 고정된 패러다임을 추구한 적은 결코 없었다고 반론한다.¹⁵⁾ 그는 페브르와 블로크(Marc Bloch) 이래로 아날은 항상 느슨하고 개방적인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다양한 인접학문들과 접촉하고 대화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스스로를 전화시켜 왔다”¹⁶⁾고 이야기한다. 아날 이래로 역사학은 고정된 경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제들,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방법들을 수용할 수 있었고, 자신의 가능성을 무한하게 확장시킬 수 있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나의 곤란이 발생한다. 아날을 계승하는 브로델의 역사학이 하나의 패러다임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해 고정된 경계와 엄격한 체계를 지니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브로델의 역사학이라 부를 수

12) 페르낭 브로델, 「사회사의 개념에 대하여」, 『역사학 논고』, pp. 183-184.

13) 페르낭 브로델, 「장기지속: 역사학과 사회과학들」, *ibid.*, p. 59.

14) 페르낭 브로델, 「사회사의 개념에 대하여」, p. 184.

15) Fernand Braudel, “Foreword”, pp. 11-12.

16) 페르낭 브로델, 「장기지속: 역사학과 사회과학들」, p. 59.

있는 것은 어디서 찾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근대 시간과의 대화 속에서 브로텔이 제기하는 문제설정 그리고 그가 제안하는 개념들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3. 문제사

브로텔에게 문제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역사학 내부의 다양성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전체’라는 틀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하나’의 역사가 아닌 ‘복수’의 역사가 존재하지만 이 다양한 역사들은 문제를 중심으로 집결하고 조화될 수 있는 것이다. 원래 문제 중심의 역사는 브로텔의 지적 스승이었던 페브르가 제안한 것이다. 페브르에 따르면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그것은 모든 역사학의 시작이요 끝이다. 문제가 없으면 역사도 없다. 단지 이야기, 편집물이 있을 뿐이다.”¹⁷⁾ 브로텔이 자신의 지적 스승인 페브르를 따라 문제사를 계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브로텔의 문제사는 단지 개별적인 역사연구의 방법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사연구의 흐름들을 전체의 틀 속에 모으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문제사를 도입하면서 역사학 내부에 생겨난 변화이다.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역사서술 속에 역사가의 주관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킨다는 의미이다. 랑케(Leopold von Ranke) 이래로 근대 역사학의 전통적인 프로그램은 ‘과거 사실의 재현’이었다. 역사가들은 이 작업이 역사가의 주관을 극도로 배제할 때만 가능하다고 믿어왔다. 그러나 이제 아날의 창시자와 그 후계자가 역사가의 주관성을 역사연구의 출발점으로 공식 선언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실이 페브르와 브로텔이 포스트모더니즘의 어설픈 원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보다는, 근대 역사학의 역사 인식론에서 명확하게 벗어났다고 말해야 정확할 것이다. 사실, 앞서 패러다임에 관한 논의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포스트모던 역사학은 근대 역사학의 문제설정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대 역사학은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을 추구하였으며 이를 ‘과학’이라 생각했다. 근대 역사학을 비판하면서 객관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이며 모든 역사서술은 역사가의 담론일 뿐이라고

17) Lucien Febvre, “Vivre l’histoire”, *Combats pour l’histoire*(Armand Colin, 1952), p. 22.

주장하는 포스트모던 역사학은 근대 역사학에 대하여 정확하게 반대편에 서 있을 뿐 이 두 진영은 같은 지형 위에 존재한다. 즉, 객관과 주관은 대립한다는 ‘근대적’ 전제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근대 역사학과 포스트모던 역사학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사실 객관과 주관의 문제는 철학의 영역에서 오랫동안 고민해온 문제이다. 리콕르나 랑시에르 같은 철학자들이 브로텔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연구 주제로 삼은 것은 브로텔의 역사사상이 주관과 객관은 서로 대립한다는 해묵은 전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제설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브로텔은 주관과 객관의 대립이 잘못된 문제제기라고 보았다.

과학이라는 이 말썽 많은 단어에 대해, 그로부터 파생되는 잘못된 문제들에 대해 논란을 벌인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것은 훨씬 고전적이면서 훨씬 불모의 논쟁인 역사학에 있어서의 객관성과 주관성의 논쟁에 가담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철학자들이 아마도 습관적으로 그 논쟁에 몰두하는 한, 철학자들이 가장 실제적인 과학은 객관적인 동시에 주관적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 감히 스스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한 그 논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반명제의 의무를 쉽사리 믿을 수 있는 우리들로서는 이 논쟁들로부터, 방법에 대한 우리의 해묵은 논쟁들로부터 기꺼이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¹⁸⁾

주관과 객관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상상은 역사가가 자신이 경험하지 못한 과거를 이해하기 위한 수단이며, 이런 점에서 주관성은 객관성에 이르기 위한 뱃사공인 셈이다.

III. 장기지속

1. 거대담론?

브로텔이 자신의 역사작업 속에서 제기하는 문제설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아마도 브로텔의 역사학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 바로 장기지속의 문제설정일 것이다. 장기지속의 역사학은 종종 ‘구조적 결정론’ 혹은 ‘움직이지 않는 역사’ 심지어는 근대 초의 역사철학이나 사회과학에

18) 페르낭 브로텔, 『1950년에 있어서 역사학의 위치』, 『역사학 논고』, p. 26.

서 연유하는 역사이론으로 잘못 이해되기도 한다. 특히 포스트모던 역사학자들은 장기지속의 역사학을 근대의 거대담론으로 오해하며 비판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잘못된 견해이다.

먼저,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비판하는 근대의 거대담론을 간단하게 상기해보자. 포스트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철학자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Jean François Lyotard)에 따르면, ‘모던’이란 메타 이야기 혹은 거대 이야기라는 정당화 담론에 의해 자신을 합리화하는 사유 및 행위 양식을 말한다. 이런 거대 담론으로 기독교적 이야기, 계몽의 이야기, 사변적 이야기, 맑스적 이야기, 자본주의적 이야기가 존재하는데, 이 이야기들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것은 ‘보편적 자유와 전 인류의 해방’이며, 이것이 바로 ‘모던의 기획’이라고 리오타르는 주장한다. 현재와 같은 포스트모던 상황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은 더 이상 신뢰될 수 없는데, 그것은 이야기의 주인공이었던 모던적 주체가 소멸했기 때문이다.¹⁹⁾ 사실 리오타르가 해체하고자 하는 ‘거대 담론’은 브로델의 장기지속보다는 신문화사가들이 자신들의 선구자 중 한 명으로 분류하는 E. P. 톰슨(Edward P. Thompson)의 ‘아래로부터의 역사’에 더 가까운 것이다. 톰슨이 그린 영국 노동자 계급의 형성 과정이야말로 모던적 주체의 거대한 이야기가 아닐까?²⁰⁾

브로델이 제기하는 장기지속의 역사학은 목적론적이고 결정론적인 역사철학이나 역사의 일반이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선험적이고 관념적인 역사의 주체를 상정하지도 않는다. 이 모든 것에서 비껴나 단지 자신이 속한 현재의 시간을 향해 문제를 제기할 뿐이다. 따라서 브로델이 장기지속의 역사서술을 통해 제기하는 문제는 주어진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1927년부터 1946년 사이에 쓰인 『필립 2세 시대의 지중해와 지중해 세계』(이하 『지중해』로 약칭)에서 제기되는 문제와 1952년부터 1979년 사이에 쓰인 『15세기에서 18세기까지의 물질문명, 경제 그리고 자본주의』(이하 『물질문명』으로

19) Jean François Lyotard, *La condition postmoderne*(Minuit, 1979) 참조.

20) 톰슨은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창작과 비평사, 2000)에서 세계를 변화시킴으로써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실천적 주체를 제시하고 있다. 톰슨의 주체는 역사의 진보를 체현하는 역사적 주체인데, 칸트(Immanuel Kant)의 ‘인류’, 피히테(Johann G. Fichte)의 ‘인민/민족’, 헤겔(G. W. F. Hegel)의 ‘세계정신’ 그리고 맑스(Karl Marx)의 ‘프롤레타리아’로 이어지는 주체에 대한 근대 담론의 흐름 속에 위치하고 있다. 근대 주체 담론의 관념적 성격에 대한 비판은 에티엔 발리바르, 『마르크스의 철학, 마르크스의 정치』, 윤소영 옮김(문화과학사, 1995), pp. 35-68.

약칭)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2. 『필립 2세 시대의 지중해와 지중해 세계』

20세기 전반기 프랑스 역사학계는 사건 중심의 역사학이 지배하고 있었다. 당시 역사학자들은 위대한 인물들이 만들어내는 극적인 사건들의 연속으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역사학은 국왕, 귀족, 장군과 같은 엘리트가 주인공이었으므로 자연히 정치적 사건들을 중심으로 구성될 수 밖에 없었다. 브로델이 자신의 박사학위논문인 『지중해』에서 설정했던 문제는 위인들이 만들어 내는 사건 중심의 전통적인 역사서술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브로델은 연구의 대상을 필립 2세 시대의 지중해라는 거대한 세계로 설정하고, 그 세계를 구성하는 역사적 세력들을 서로 대면시키는 전략을 취한다.²¹⁾ 지중해라는 커다란 무대에 세 개의 주요한 세력들이 등장한다: 지리적 구조, 사회, 개인. 역사학자는 이 세력들을 시간 지속적으로 측정하는데, 이에 따라 역사적 시간은 지리적인 시간과 사회적인 시간, 개인적인 시간으로 삼등분 된다. 이 전략이 가진 위험성은 사건의 의미가 축소되고 지중해라는 거대한 지리적 구조가 강조됨으로써 역사 서술 속에서 변화를 담보하는 역사성은 사라지고 고정된 불변의 요소들로만 구성된 ‘움직이지 않는 역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같은 부정적인 결과는 우리가 근대 사회과학적 역사학들에서 종종 목격하는 일이다. 사건에 기대지 않고 구조를 강조하면서 어떻게 역사의 변화를 사고 할 것인가?

브로델은 앙리 피렌느(Henri Pirenne)와 페브르에게서 해결책을 발견한다. 그는 1931년 알제리의 한 강연회에서 피렌느가 지중해를 하나의 세계로서 설명했던 것이 자신의 학위논문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회고한다.²²⁾ 그 강연회에서 피렌느가 제시한 역사적 지중해는 장구한 역사 속에서 스스로 개방하고 폐쇄하기를 반복하는 세계였다.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는 순환적인

21) 이러한 논문의 구조 설정에는 페브르의 조언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원래 브로델의 계획은 <필립 2세, 스페인 그리고 지중해>라는 제목 하에 필립 2세 말기의 지중해 정책에 대한 전통적인 역사서술이었다. Giuliana Gemelli, *Fernand Braudel*(Editions Odile Jacob, 1995), pp. 42-43.

22) Fernand Braudel, “Ma formation d'historien”, *Ecrits sur l'histoire II*(Champs/Flammarion, 1994), p. 13.

장기적 시간의 개념은 페브르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다. 브로델이 페브르의 가장 훌륭한 저작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한 『마르틴 루터: 하나의 운명』은 반복적 리듬을 가진 역사적 시간과 그 시간을 살아가는 한 인간의 운명을 그리고 있다.²³⁾ 루터가 진정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운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역사적 시간이 자신에게 열려있을 때였다.

브로델이 『지중해』에 도입한 반복적 리듬을 가진 구조의 시간 개념은 이처럼 피렌스와 페브르에게서 빌려온 것이었다. 이 긴 시간, “계속되는 반복들과 끊임없이 다시 시작되는 주기들로 만들어진, 서서히 흘러가고 서서히 변형되는 역사”²⁴⁾는 마치 운명과도 같이 인간들에 대해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한다. 필립 2세 시대의 지중해 세계에 펼쳐졌던 사회와 인간의 역사는 그 세계를 떠받치고 있는 장기적인 시간의 순환적인 움직임 속에서 진행되었던 것이다.

3. 『물질문명, 경제, 자본주의』

1966년 『지중해』의 재판 서문에서 브로델은 재판을 내는 것을 많이 망설였다고 쓰고 있다.²⁵⁾ 처음 지중해를 쓸 때와는 시대적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주어진 시간의 변화에 따라 아날 역사학의 문제설정도 『지중해』 초판을 쓸 때와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었다. 새롭게 변화한 시간 속에서 새로운 문제가 떠오른 것이다.

마르크 블로크의 유작인 역사가의 직무에서부터 루시앙 페브르가 사실상 단독 주간으로 지도했던 전후의 <아날> 사이의 거리는 상당한 것이었다. 방법과 지향에 대해 너무도 무신경한 역사학자들은 거의 그 점을 눈치 채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1945년 이후에는 새롭게 질문이 제기되었다. 즉 역사학의 역할과 효용은 무엇인가? 역사학은 전적으로 과거에 대한 연구이고 또 그래야만 하는가?²⁶⁾

당시 역사학은 급격히 성장한 사회과학, 특히 레비-스트로스의 구조주의 인류학의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역사학을 과거에 묶어놓고 그 역할과 효용

23) 페브르의 『마르틴 루터: 하나의 운명』에 대한 브로델의 언급은 「1950년에 있어서 역사학의 위치」, pp. 40-41.

24) Fernand Braudel, “Préface”, *La Méditerranée et le monde méditerranéen à l’époque de Philippe II*(Armand Colin, 1949), p. 13.

25) Fernand Braudel, “Préface à la seconde édition”, *ibid.*, p. 16.

26) 페르낭 브로델, 「역사학과 사회학」, 『역사학논고』, p. 103.

을 제한하려는 사회과학의 위협에 맞서 장기지속은 역사학이 ‘과거’라는 경계를 뛰어넘어 현재를 인식하는 수단으로 제시된다.

역사학의 본질적인 길인 장기지속에 대한 유용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것만이 역사학의 유일무이한 길은 아니지만, 그것만이 현재와 과거의 사회구조들에 관한 큰 문제들을 제기하는 길이다. 그것은 역사학을 사실상 해체 불가능한 전체인 현재에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언어이다.²⁷⁾

『물질문명』에서 등장하는 장기지속의 역사학은 지중해에서 보여주었던 것과는 다른 모습으로 등장한다. 『지중해』가 과거 세계의 역사적 시간, 완만한 리듬을 가진 반복적 시간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재의 문제에 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이었다면, 『물질문명』은 역사적 현재 그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고찰이다.²⁸⁾ 이제 장기지속은 구조의 반복적 시간이 아니라 현재를 구성하는 구조들의 거대한 진화 과정으로 제시된다. 브로델은 현 세계의 물질 토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고유한 역사를 1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시간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 그 장구한 진화의 과정을 추적한다. 물론 이러한 시도가 브로델이 처음은 아니다. 독일 관념론에서 출발하는 역사철학, 근대 사회과학적 전통에 기반을 두는 역사의 일반 법칙들도 동일한 작업을 시도했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설명들은 언제나 목적론적이거나 결정론적이었고 따라서 관념적일 수 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궁극적인 대상이 현재가 아니라 미래였기 때문이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하나의 과정으로 묶는 것은 진보의 이데올로기였고, 이 진보의 논리로 연결된 총체적인 역사과정은 앞에서 이미 이야기했듯이 포스트모더니즘에서 비판하는 거대담론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물질문명』에서 브로델의 연구대상은 현재이다. 미래는 “아주 서로 다른,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명들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을 뿐이다.”²⁹⁾ 과거와 현재를 묶는 총체적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브로델이 도입한 것은 진보가

27) 페르낭 브로델, 『서문』, p. 12.

28) 원래 『물질문명』은 페브르가 편집하는 <세계의 운명들> 시리즈의 한 권으로 기획되었다. 브로델이 경제문명의 역사를 서술하고 페브르는 정신문명의 역사(Western Thought and Belief, 1400-1800)를 쓰기로 계획되었지만 1956년 편집자의 사망으로 『물질문명』만 출간된다. Fernand Braudel, *Afterthoughts on Material Civilization and Capitalism*(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7), p. 3.

29) 페르낭 브로델, 『문명사: 과거는 현재를 설명한다』, 『역사학논고』, p. 275.

아니라 ‘진화’의 과정이다. 진화는 역사를 그 자체로서 그 자체의 힘에 의해 전개되는 과정으로 설명한다.³⁰⁾ 진화의 과정은 현재를 구성하는 물질 조건들의 고유한 역사를 의미하며, 역사적 세력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전개된다. 이 역사적 세력들은 역사과정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힘들을 의미하는데, 각각의 세력들은 시간지속으로 측정될 수 있다. 지리적 환경처럼 아주 긴 시간에서부터 우발적 사건처럼 아주 짧은 시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간들이 존재한다. “서로 대립되고 어깨를 겨루며 심지어 서로 상반되기까지도 하는” 이 세력들은 역사발전의 버팀목이기도 하며 장애물이기도 하다. 각기 고유한 시간의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이 세력들 사이의 상호관계 속에서 역사는 발전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한다.³¹⁾

장기지속이란 ‘전체’의 진화과정이다. 브로델의 전체가 독일 관념론의 역사철학과 근대 사회과학의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제기해온 ‘유기체적 총체’와 구분될 수 있는 것은 집합(ensemble)의 개념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기체적 총체는 하나의 본질적인 중심을 상징하고 나머지 구성부분은 이 중심에 대해 종속적인 것으로 설명된다. 반면, 브로델의 전체집합은 탈중심화 되어있다.³²⁾ 이 역사적 전체는 역사를 구성하는 다양한 힘들의 집합으로 이루어지며, 전체의 진화과정은 이러한 힘들이 중층결정(surdétermination)되는 상호관계 속에서 만들어진다. 서로가 서로에게 작용하는 힘들의 우위관계는 선형적으로 규정될 수 없으며, 역사의 각 단계 속에서 주어지는 구체적인 역사상황 속에서만 결정될 뿐이다. 결국, 역사의 과정은 선형적으로 파악될 수 없고, 그 과정을 구성하는 관계들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역사의 일반 이론은 존재할 수 없으며, 현실의 구체적인 과정을 가진 고유한 역사들만이 존재할 뿐이다.³³⁾

30) 브로델은 항상 “역사는 그 자체로서 그 자체의 힘에 의해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950년에 있어서 역사학의 위치』, p. 29.

31) 역사의 과정을 구성하는 다양한 시간들에 대해서는 페르낭 브로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II-1, 주경철 옮김(까치글방, 1997), pp. 90-115를 참조.

32) 브로델은 사회를 ‘집합들의 집합(ensemble des ensembles)’으로 본다. 브로델의 ‘집합’ 혹은 ‘집합들의 집합’ 개념에 대해서는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II-2, pp. 651-656 참조.

33) 이러한 이론적 토대에서 임마뉴엘 월러스타인(Immanuel Wallerstein)은 ‘자본주의 일반(Capitalisme en général)’을 비판하며 ‘역사적 자본주의(Capitalisme historique)’를 제시한다. 『역사적 자본주의/자본주의 문명』, 나종일·백영경 옮김(창작과 비평사,

4. 현재 시간의 역사

“역사는 과거에 대한 학문이자, 현재에 대한 학문”³⁴⁾이라는 생각은 아날 역사가들의 공통적인 입장이었다. 페브르가 문제사를 제기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 현재의 문제를 과거에 대한 연구 속에 투영한다는 의미였다. 『지중해』는 페브르의 후계자로서 브로델이 스승의 역사사상을 충실하게 계승한 작품이었다. 페브르는 『지중해』를 아날학파의 교과서라고 칭송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던 역사학이 실현된 것을 반겼다.³⁵⁾ 그렇지만, 브로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자신의 역사학을 만들어 내는데 이 결과물이 『물질문명』이었다. 브로델은 현재의 문제를 과거에 투영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를 구성하는 역사적 시간, 그 자체의 역사를 직접 고찰한다. 『물질문명』에서 보여준 현재 시간의 역사는 미완성의 유작, 『프랑스의 정체성』³⁶⁾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시간의 역사는 단지 연구의 대상이 과거에서 현재로 이동했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브로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현재 시간의 역사학은 현재를 역사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현재를 역사화 시킨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속해있는 현재를 거리를 두고 바라보게 만든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도 당연히 생각했던 것들, 너무 가까이 있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린 것들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효과는 현재를 구성하는 시간들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더욱 커진다. 구조화되면서 탈역사화된 현재를 다시 한 번 새롭게 인식하면서 현재 시간의 외부를 사유하는 작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결국 『물질문명』에서 제기하는 장기기속의 역사학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구성하는 물질 토대들을 이해하고 그 토대들의 고유한 역사를 가로지르면서 횡단의 과정 속에서 현재시간이 스스로를 인식하고 변화를 사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1993) 참조.

34) 이것은 1945년 이후 페브르의 입장이었다. 브로델 역시 자신의 여러 논문들에서 이 말을 반복해 인용하고 있다. 페르낭 브로델, 『역사학과 사회학』, p. 104.

35) 루시앙 페브르, 『다른 역사를 향하여』, 김웅중 옮김, 『아날학파의 역사세계』(아르케, 2001), pp. 82-86 참조.

36) Fernand Braudel, *L'identité de la France*, 3vols(Flammarion, 1986).

IV. 맺음말

이제 우리가 이 논의를 시작하게 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에도 브로델은 여전히 유용한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브로델의 역사학은 근대 역사학의 지형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다. 브로델의 역사학을 사회과학적 역사학의 전형으로 오해하는 시각들과는 달리, 브로델은 근대 사회과학적 전통과의 비판적 관계에 위치하면서 근대 역사학을 향해 문제를 제기하고 새로운 개념들을 제안했다. 무엇보다도 과거 사실의 충실한 재현이라는 근대 역사학의 전통적인 프로그램을 대신해 현재 시간의 역사학이라는 새로운 문제설정을 제시하고 있다. 브로델의 역사학은 포스트모더니즘이 유행하는 현재 시간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유용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 보이는데, 전통적인 역사학을 넘어서기 위한 고민들 속에서 그의 문제설정과 개념들이 가지는 가치는 더욱 더 커질 것이다. (경희대 사학과 강사)

주제어 : 브로델(Braudel), 아날(Annales),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전체사(Histoire totale), 장기지속(Longue durée)

<참고문헌>

브로델의 글들

- 페르낭 브로델, 『역사학 논고』, 이정옥 옮김(민음사, 1990)
 페르낭 브로델, 『물질문명과 자본주의』 전6권, 주경철 옮김(까치글방, 1997)
 Fernand Braudel, *La Méditerranée et le monde méditerranéen à l'époque de Philippe II*, 2vols(Armand Colin, 1949)
 Fernand Braudel, "Foreword", in Traian Stoianovich, *French Historical Method, The Annales Paradigm*(Cornell University Press, 1976)
 Fernand Braudel, *Afterthoughts on Material Civilization and Capitalism*(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7)
 Fernand Braudel, "En guise de conclusion" et "discussion", *Review I*, 3/4(Winter/Spring, 1978)
 Fernand Braudel, *L'identité de la France*, 3vols(Flammarion, 1986)
 Fernand Braudel, *Ecrits sur l'histoire II*(Champs/Flammarion, 1994)

브로델에 관련된 글들

- 김웅중, 『아날학파의 역사세계』(아르케, 2001)
 임마뉴엘 왈러스타인, 『역사적 자본주의/자본주의 문명』, 나종일 · 백영경 옮김(창작과 비평사, 1993)
 폴 리쾨르, 『시간과 이야기』, 김한식 · 이경래 옮김(문학과 지성사, 1999)
 프랑수아 도스, 『구조주의의 역사 I』, 이봉지 · 송기정 옮김(동문선, 1991)
 Didier Eribon, *Michel Foucault*(Flammarion, 1989)
 Entretien avec François Furet, *Magazine littéraire*(Mars, 1986)
 François Dosse(ed.), *EspaceTemps*, 34/35(1986)
 Giuliana Gemelli, *Fernand Braudel*(Editions Odile Jacob, 1995)
 Jacques Le Goff, Roger Chartier et Jacques Revel(dir.), *La nouvelle histoire, Les encyclopédies du Savoir moderne*(Retz CEPL, 1978)
 Jacques Rancière, *Les noms de l'histoire, Essai de poétique du savoir*(Seuil, 1992)
 Jacques Rancière, "Histoire et récit", in *L'histoire entre épistémologie et demande sociale*(IUFM de Crteil, 1994)
 Jean François Lyotard, *La condition postmoderne*(Minuit, 1979)

Lucien Febvre, *Combats pour l'histoire*(Armand Colin, 1952)

Pierre Chaunu, “Conjonctures, structures, systèmes de civilisations”,
*Conjoncture économique, structures sociales-Hommage Ernest
Labrousse*(Ecole pratique des hautes études, 1974)

Traian Stoianovich, *French Historical Method, The Annales Paradigm*
(Cornell University Press, 1976)

<Résumé>

Braudel après le postmodernisme

Won Koh

Fernand Braudel est souvent considéré à tort comme un représentant de l'histoire scientifique sociale. Mais, il était penseur qui recherchait à dépasser les limites de son temps. Il avait un instinct très sûr qui l'a conduit à mettre en question les modes de vérités historiques et à frayer ainsi, de manière explicite ou parfois plus voilée, des voies nouvelles par-delà les anciens dilemmes. Braudel était historien qui tirait du travail d'archives les matériaux pour construire une 'histoire pensée', et elle sera en position d'affrontement avec la façon dont la tradition de la science sociale moderne a isolé, circonscrit l'histoire.

Pour comprendre et faire comprendre cela, cette étude se consacre au rapport critique que Braudel entretient avec la tradition de la science sociale moderne, et à l'effet qu'il a produit sur elle. En examinant 'l'histoire totale' et la 'longue durée' de Braudel dans *La Méditerranée et le monde méditerranéen à l'époque de Philippe II* et *La Civilisation matérielle, économie et capitalisme, XV^e-XVIII^e siècle*, on explicitera la problématique qu'il a posé et les idées qu'il a proposé au temps actuel.

<Summary>

Braudel after the Postmodernism

Won Koh

Fernand Braudel is often regarded wrongly as a representative of the social scientific history. But, he was a thinker who sought to rise above the limitations of his time. He had sure instincts which led him in fact to question historiographical verities, and thereupon, sometimes explicitly, sometimes only implicitly, to indicate new ways out of old dilemmas. Braudel was a historian who drew from the archival research the materials to build a 'histoire pensée', and it will be in position of confrontation with the way in which the tradition of modern social science insulated, circumscribed the history.

In order to understand and render comprehensible that, this study concentrates upon the critical relation that Braudel maintains with the tradition of modern social science, and upon the effect which he produced on this tradition. We will examine the 'total history' and the 'longue durée' of Braudel in the Mediterranean and the *Mediterranean world at the time of Philippe II* and the *Material Civilization, economy and capitalism, XV^e-XVIII^e century*, for clarify the problems which he raises and the ideas that he proposes at current time.